

광주시 출자기관 등 블라인드 채용 외면

문재인 정부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권고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산하 일부 출연·출자기관이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9월1일부터 10월12일까지 광주시 출연·출자기관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된 정보를 조사한 결과, 광주문화재단과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등 4개 기관이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벌없는 사회 시민모임’ 조사 결과 광주문화재단 등 4개 기관 부실 지적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에 출신 지역과 학력, 사진 부착 등을 금지해 직무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9월부터 지방공기업에 대해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그러나 광주문화재단은 직무능력

과 연관없는 응시자 학력사항 기재를 요구했으며 광주복지재단, 광주영어방송, 광주테크노파크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작성토록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입사지원서의 최종학교 소재지 정보는 물론 학력과 성적, 외국어 능력 등에 따라 배점을 달리해 심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요소를 입사지원서에 기재토록 하는 것은 특정 요소에 의해 차별하거나 특정 출신자를 우대 또는 배제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편견으로 이어진다"며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내 상시적인 관리·감독과 경영평가 지표 반영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동영상 강의 짜게 팔아요” 30대 사기범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15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과 동영상 강의자료를 저렴하게 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한 사이트에 '상품권과 공무원 시험 준비 강의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받은 20명에게 524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도박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명한 강사의 공무원 시험 과목 강의를 시세보다 싸게 팔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동종 전과가 있는 김씨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를 8개 이상 사용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문화재 보호구역 불법 조업’ 선장 등 5명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한 낚시어선 선장 등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14일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조업을 하다 해경의 검문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 한 혐의(문화재 보호법 위반)로 김모(43)씨 등 5명을 불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이날 오후 2시45분께 여수시 삼백도 서쪽에 낚시어선 A호(9.77t)를 계류시켜 놓고 낚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백도는 암석으로 이뤄진 바위섬으로 기암절벽과 바다직박구리, 흑비둘기, 휘파람새 등 희귀 조류 등이 서식하고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씨는 삼백도 입도를 허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날 오전 11시께 국동항에서 낚시객 5명을 태우고 출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공 순찰 중이던 해경항공단에 발견됐으며 지령을 받은 해경은 경비정을 이용해 출동했다.

이들은 또 검문을 피해 40km 정도 떨어진 금오도 인근 해상까지 도주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낚시를 하게 된 경우 등을 조사한 뒤 처벌할 방침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술 취해 동료선원 흉기로 찌른 50대 구속

목포해양경찰서는 13일 해상에서 술에 취해 동료 선원을 흉기로 찌른 임모(5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44분께 신안군 비금도 서쪽 4.2km 해상에서 동료선원 김모(45)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다.

임씨는 지난 9일 저녁 여선 갑판에서 김씨가 말다툼 끝에 밀어 넘어뜨린 것에 앙심을 품고 다음날 술에 취해 갑판에 있던 작업용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찌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임씨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3일 목포지방검찰청으로 송지했다.

해경 조사에서 임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 목포의 한 대형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등 5명 달미

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을 모집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6)씨 등 5명을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내에 비밀클럽을 개설하고 1만여명의 회원을 모집, 음란물을 유포하며 350여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비밀클럽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이 곳에서 많은 양의 음란물을 다운받은 네티즌에 대해서도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또 파일 공유사이트 측이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 데리고 다닌 20대男 2명 실형·벌금형 광주지방법원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다닌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최창훈 판사는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가출 학생 B(16) 양을 광주 일대 찜질방 등지에 데리고 다니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실종 청소년을 보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8일 오후 전남 한 지역 농장 숙소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고득점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한 달여 앞둔 15일 오전 경기 화성 용주사에서 고3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이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다.

중학교 내 성폭력 용의자, 사건 이후 한달간 계속 근무 ‘파문’

피해학생 한달 간 등교 못해

여수시의 한 중학교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용의자를 한 달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가해 용의자는 근무를 계속한 반면 피해 학생은 한달 동안 학교에 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여수성폭력상담소(소장 오선화)는 지난달 1일 여수 모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인 지적장애 2급 A(13)양이 학내에서 공익근무요원 B(21)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사후 조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여수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사건 발생 후 여수경찰서는 18분 분량의 CCTV의 자료를 확보해 이 학교 특수교육활동 보조원으로 근무 중인 B씨를 용의자를 지목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양과 B씨를 분리조치를 하도록 학교 측에 권했고, A양은 이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학교에 가지 못했다. B씨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양 가족은 "피해자가 오히려 학교를 가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 측에 강력히 항의 하면서 A양의 등교를 요구했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가족들의 이 같은 요구에도 학교 측은 "(사건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안이한 태도를 보여 가족들의 울분을 샀다고 주장했다.

여수성폭력상담소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내의 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기관장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14일 이내에 학교폭력위원회회를 열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성폭력 용의자를 한 달 동안 학내에 출근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서가 B씨를 긴급체포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가

체포 된 후 학교 담임선생님이 피해자를 찾아와 '학교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회의를 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다'는 내용을 보호자에게 서면 싸인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여수성폭력상담소 오선화 소장은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 있으며 더욱이 교실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됐음 알고있으면서도 학교 측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B씨를 근무하게 했고 A양의 등교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악할 일이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CCTV영상으로 확인된 피해자와 공익요원이 함께 있었던 시간이 짧아서 실마 하다가 일이 잘못됐으며, 사건 후 제대로 조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